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020. 8, 제18권, 제3호, pp. 129~142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2020. 8, Vol. 18, No. 3, pp. 129~142

## 학생선수의 학업적응에 대한 정책과 현장의 괴리\*

임효성(한국체육대학교 연구원) · 최영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I. 서론

여느 한 학생선수의 일상을 그려본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축구선수 기철이는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새벽 5시 30분. 선배의 기상소리에 일어나 옷을 챙겨 입는다. 6시까지 훈련 장비를 챙겨서 운동장에 모인다. 7시 30분까지 체력위주의 훈련을 한다. 땀으로 젖은 몸을 씻고 아침식사를 마친다. 9시부터 시작하는 첫 교시 수업에 들어갈 것인가 잠시 망설인다. 이번엔 수업에 들어가기로 한다. 지난 이틀간 코치선생님 몰래 수업에 빠졌기 때문이다. 오전 수업시간 내내 한 없이 무거워진 눈꺼풀을 어찌하지 못하고 결국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잔다. 학기 초 한두 번 분위기(?)를 모르고 질책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지만 이제는 그냥 넘어가 주신다. ....(중략).... 6년이 지난 지금 기철은 대학교 3학년이자 축구부원이다(정일규, 2016).

진국희(2010)의 보고에 따르면 축구선수들의 수업시간 주요행동을 살펴본 결과, 수업시간에

핵심어: 학생선수, 학업적응, 정책, 학교현장, 괴리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3517)

\*\* e-mail: cyj@bufs.ac.kr

잠을 자거나(26.49%), 다른 책을 보거나(30.46%),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등(14.08%)이 대부분이고 실제 수업에 집중하는 경우는 18.97%로 나타났다. 한편 수업내용을 이해하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은 안다(49.43%), 전혀 모른다(37.07%), 반 정도는 안다(11.78%), 거의 다 안다(1.72%)로 응답하였다. 다수 정책이 실행된 지 상당 기간이 흐른 교육현장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안타깝지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선수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학생선수는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4호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되어 있다(임효성, 최영준, 2018). 이처럼 학생선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역할과 신분이 명문화되어있음에도 그동안 학생선수의 학업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논의와 노력 끝에 주말리그제, 최저학력제 적용, e-School 도입 등 정책의 결과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은 자리잡혀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스쿨(e-School)은 대회 및 훈련 참가로 발생하는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 제공 등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으로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을 활

용하여 개설과목(중학교 68과목, 고등학교 86과목)을 수강하는 것이다. 2017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이-스쿨(e-School) 운영사업 성과 공유'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약 40,000명(88.4%)의 학생선수가 이-스쿨(e-School)을 통해 학습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2016)의 보고에 의하면, 학교운동부 훈련은 평상시 정규수업 후 운동 52.1%, 오전수업 후 운동 47.9%였고, 대회준비 기간 동안에는 정규수업 후 운동 20.4%, 오전수업 후 운동 60.4%, 전일 연습 19.2%로 나타났으며 대회 출전에 따른 수업결손은 16일~20일 28.7%로 가장 높았고, 11일~15일 22.2%, 26일 이상 9.6%로 나타났다(최상협, 이병찬, 2020). 그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선수는 교실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기철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이 책상에 앉게 되었다고 분명 그것이 저절로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의 시작점은 여기에 있다. 학생선수들은 교실로 돌려보내져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이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일까?

적응(adjustment)이란 생물학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생물의 종이 환경변화에 순응하도록 애쓰는 과정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적응의 개념은 사람에게 적용되면서 단순히 환경에 순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서울대교육연구소, 1998). 일반적으로 적응이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여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인간이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문은식, 2002; 최보람, 2008, 한

국교육심리학회, 2000).

이와 같은 적응은 다양한 조직과 환경에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학생선수는 학교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겪으며 성장하게 된다. 학교적응은 학생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조화를 이루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원만한 적응이란,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학교 규칙을 따르며, 교사 및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강유경, 2015). 반면 학교 내에서 적응하는 과정 중 나타나는 학습활동 부적응은 학생의 지적능력이 충분하고 가능성이 있으나 성취수준은 이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학습활동 부적응 유형에는 학습의욕이 없는 경우, 학습부진 또는 학습장애에 요인을 가진 경우, 노력하여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 시험공포증이 있거나 외국에서 온 경우 등을 포함한다. 학습의욕이 없는 학생은 수업시간에 책을 펴놓고 있으나 수업에 관심이 없고 멍하게 앉아있거나 동화책 또는 만화책을 보기도 하고 혼자 낙서를 하는 등 학습에 의욕이 없고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말한다(김혜영, 2009; 심의보, 2015).

일선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거나 학업적응수준이 높은 학생에게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성적이 낮거나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주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학생은 더욱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게 된다(강유경, 2015). 특히 과거 학생선수는 수업결손은 일반적인 행태였고, 학업성취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배적인 학교문화에서는 여전히 학생선수의 학업문제는 냉담한 처우가 남겨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차원에서 학생선수의 학업적응은 다소 경시되어왔던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교실로 간 학생선수의 학업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학업적응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그들의 학습을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다.

앞선 연구에서는 학생선수의 운동-학업의 병행사례(김성우, 임현주, 2013; 김홍석, 류태호, 최진숙, 2009; 이열, 2018; 이혁기, 2011; 이혁기, 박창범, 임수원, 2007)와 학업문화 혹은 학업환경을 주제로 한 다수의 연구(김상우, 유정애, 2018; 김석용, 2015; 이혁기, 임수원, 2010; 정다빈, 2018)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업병행 현장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고, 그들의 학업적응에 있어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정현우와 윤기준(2020)은 경기 실적에 치우친 학교운동부 문화로 인해 학생선수의 교육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생선수의 자발적 학업참여와 학교운동부 운영과정과 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열(2018)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의 입문 과정, 동기부여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받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학생선수의 학업문제를 해결을 정책적으로 모색한 연구(곽은창, 김용규, 주병하, 2011; 김동현, 윤양진, 2011; 명왕성, 최영래, 2019; 우승호, 진연경, 2018; 진국희, 2010; 홍석호, 2013)가 함께 이루어져왔다. 이들 연구를 포함해 학계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업현장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시도가 계속되

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과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2000년대 후반에 도입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들이 기존의 학생선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다(정현우, 윤기준, 2020). 결국 현장과 정책은 다소 어긋나 괴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를 통해 그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과도기란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거나 바뀌어 가는 도중의 시기를 말한다. 학원스포츠계가 학생선수의 훈련과 경기실적에 방점을 두고 육성하던 시기에서 지금은 그들의 학업병행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지향점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가장 낮은 것은 학생선수들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처음 학교라는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적응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정책이 현장과 겹도는 것이 아닌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의 학업부적응을 예방하고 온전한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한 현장중심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의 학업적응과 관련한 정책과 현장적용에 있어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학생선수의 효과적인 학업적응을 위한 현장중심의 실천적 방안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학생선수의 학업적응에 대한 정책과 학업적응을 위한 현장중심의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과 적절성 검증을 다음과 같다. 의미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참여자가 필수이기 때문이다(Bryant & Charmaz, 2010). 먼저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으로 학생선수의 학업문제에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경력이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전문가집단과 현장전문가집단을 구분하여 총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의 선정 및 구성에 있어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학생선수 학업문제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체육계열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표 1>과 같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생선수의 학업문제와 대한 이해가 깊고, 정책과 현장 어느 한쪽에 편향된 것이 아닌 균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요

	구분	경력	성별	소속
정책	A참여자	26년	남	시의회 의원
정책	B참여자	21년	남	시·도체육회 임원
정책	C참여자	13년	남	대학교 교수
현장	D참여자	30년	남	진로교육 강사
현장	E참여자	14년	남	대학교 강사
현장	F참여자	21년	남	대학교 코치

먼저 정책전문가집단에서 A참여자는 교육행정 전공으로 K대학교 교수이면서 S시의회 교

육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참여자가 소속된 대학은 체육특성화대학으로 학생선수의 학업문제를 현장에서 경험해왔고, S시의 교육정책 입안에 참여해왔다. B참여자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체육특성화고등학교에 오랜 기간 교사로 근무해왔으며, 현재 K도체육회의 총괄운영본부장으로 체육행정을 맡게 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여러 정책마련과 실행에 관여하고 있다. C참여자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B대학교 교수이면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에서 학생선수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체육정책학회 및 한국스포츠교육학회에서 활동하면서 학생선수 학업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다. 상기한 정책전문가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수업과 지도를 한 경험이 있고, 스포츠현장에 대한 정책 및 학술적인 배경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제공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다음 현장전문가집단에서 D참여자는 선수출신으로 10년간 K초등학교 교사로 재임하였으며, 현재는 교육기업을 운영하면서 대한체육회 진로교육 강사 및 평가위원으로 학생선수의 학업문제를 개선하는데 일임하고 있다. 은퇴 후 학생선수의 진로는 선수생활 중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여 재능기부를 통해 학업과 관련한 교육, 토론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E참여자는 선수와 지도자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K대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최저학력제 적용 후 실태조사 등 연구과제에 참여하였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후배선수들을 돕고 있다. F참여자는 선수생활을 은퇴한 후 해외에서 유

학생활을 통해 국내와 다른 선수육성시스템을 통해 관점이 전환되었고, 현재 학교운동부 및 국가대표 상비군 지도자를 겸하고 있으며, 학생선수들의 수업참여를 관리하며 학업문제에 대한 상담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들의 현장전문가는 모두 선수와 지도자로서 경험이 있으며, 학생선수의 학업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내의 선수육성환경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학업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각 연구 참여자별 개별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연구문제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은 <표 2>와 같다.

표 2. 질문지

구분	질문
정책·현장적용의 간극	1. 학생선수 학업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는데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업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	2. 학생선수가 원만한 학업적응을 하는데 있어 강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무엇인가요?

앞선 학업적응과 관련한 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문헌고찰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주요자료로 많이 활용되는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사전에 연구 참여자와 면담일정을 협의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선호하는 장소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Sony사의 ICDPX240 모델을 사용하여 녹취하였으며 중요부분은 면담기록지에 메모를 병행하였다. 자료수집 후 분석과정에서 부족한 내용은 우선상으로 연락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충하는 과정이 있었다.

##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료 속에 특징적인 의미, 주제, 규칙을 찾아내고 해석하는 과정이다(신경림 외, 2004). 보조 자료로써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의 정책자료 및 관련 선행연구를 활용하였고, 주요자료로서 녹취한 면담 자료를 각 연구 참여자별로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숙독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부분에 표기를 하면서 부호화 단계를 거친 후,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 통해 주제를 생성하였다(Spradley, 1980). 상기한 자료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별로 먼저 정책·현장적용의 간극에서는 ‘정책 입안·실행상의 우선순위 차이’, ‘현장의 정책이해 부족’, ‘현장에 대한 정책적 배려부족’이라는 대주제가 도출되었고, 학업적응 방안에서는 ‘정책 입안·실행자 간의 소통 강화’, ‘정책 실행의 토대 마련’, ‘정책 실행의 장치제공’이 도출되었다.

## 4. 연구의 진실성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검증법, 구성원간의 검토 및 연구자의 방법적 반성을 수행하였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면담 이외 학생선수 학습권 관련한 정책자료,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자료수집을 다각화하여 자료

의 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편향된 관점을 방지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 참여자 입장에서의 교정적인 피드백을 받고자 시도하였다. 한편 질적 연구전문가에게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점검받는 과정과 더불어 연구문제 선정부터 자료수집, 분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선행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문헌을 참조하여 연구방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연구하는 내내 기울였다.

한편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정보제공자인 연구 참여자에게 이 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얻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와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는 이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없도록 자료보관에 각별히 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작성에 있어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기호로 표기된 가명을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논의

먼저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책입안자와 정책실행자의 상반된 입장에서 학생선수의 학업문제 해결을 바라보았다. 아래의 연구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 1. 정책-현장적응의 간극

첫째, 정책입안자와 정책실행자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학생선수는 학생으로서 신분과 선수로서의 신분 즉 이중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정책입안자 측면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면서 당연히 그 우선순위는 학생선수를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에 대해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반면 현장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업보다는 운동이 우선순위에 있고, 학생선수와 팀의 성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이 아닌 훈련과 시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책입안자와 정책실행자의 우선순위가 전혀 다른거지.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코치들은 운동시키는데 중요한거지, 수업들어보내고 공부시키는데 제일 아래 있는거지. 이들에게는 학습권 보장보다는 운동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맞는거지. 최저학력제나 학습권보장하는 정책에 대한 시선이 다른데 당연히 그게 잘 이루어질 리가 없지. (A참여자)

C참여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였다. 즉, 학생선수의 학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어서 학생이나 지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학생선수의 학업을 우선순위에 두기에는 지도자의 처우가 안정적이지 않고 평가의 체계가 학생선수의 실적만으로 평가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학업문제를 신경 쓸 수도 없고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이월(2018)의 연구에서도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학교라는 교육적 장소 안에서 교육자와 우수경기실적을 향한 코치 사이의 역할 갈등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결정과 실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능적 필요성과 함께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신현석, 2018)에 정책입안자와 정책실행자가 소통하여 우선순위에 대해 협의하여 협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제도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은 물론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과 함께 학업적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정책 추진에 방향성을 제시하며, 매년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책을 소화해야 하는 현장에게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다(전정선, 윤양진, 2011).

둘째, 현장의 학업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현장의 경우 학습권 보장제의 취지나 방법 등 정책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알기 어렵고,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현장에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 내지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실제 시험출전금지 등의 사건이 발생해서야 부분적으로 정책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일단 제도는 구축이 되었잖아? 근데 그 제도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학교운동부지도자나 이걸 실제 해야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도 확신이 없어. ....(중략).... 결국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게 실행되는 현장과 판이 만들어

져야 하는데, 정책은 정책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인거지. (B참여자)

한편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혼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B참여자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최소한 유지되어야 하는데, 문체부 인사가 있음에 따라 전임자와 다른 정책적 기초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시도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지역 간의 정책적응에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아울러 박민영(2020)의 보고에서도 지역교육지원청 등 정책기관에서 담당자가 순환되면서 담당이 바뀌어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일관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현장에서 학생선수가 겪는 학습문제에 대한 정책의 배려가 부족하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e-School 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그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워 정책과 현장에 간극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학생선수가 교실에 앉아서 수업은 듣지만 과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받는지 잘 알지 못하는 등 학습에 대한 실패경험은 결국 학습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상협과 이병찬(2020)의 연구에서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인 e-School에 대한 학생선수의 면담내용은 이에 대한 설득력을 얻는다. '설명이 너무 어려워 지루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강에 비해 재미가 없다'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선수에게 암기 과목만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습보장에 대한 조항으로 수업참여만 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 학생선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까지 정책내용에서 제시되어야 하지만 실제 그러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즉,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D참여자(학생선수)를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반학생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선수가 학업흥미가 떨어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결여되는 악순환에서 교실에는 있지만, 결코 학생선수의 학습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최저학력제가 일반학생이 듣는 수업에서 학생선수는 이정도 성취만 되면 된다. 이런건데, 오히려 맨날 성적나오면 뒤에 있는데, 애들은 공부하고 싶었어? 저도 그 과목선생님이 좋거나 그 과목이 좋은 것들은 들어가서 수업듣긴 했는데, 애들도 마찬가지로요. 자신에게 필요하고, 재미있게 수업이 되야 들어가서도 공부가 되죠. (D참여자)

이밖에도 정규교과과정을 거쳐 학생으로서 학업이수를 해야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실질적 학업은 어렵고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B참여자는 현장에서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고, 정책과 제도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수업빠지지 못하게 제한하니까 그 선수들 그대로 지방으로 전학갔다가 이제 그마저도 안되니까 방통고로 가

고 아예 운동에 전념하겠다고 탁구선수 하나는 실업팀 입단했잖아. (B참여자)

일부 종목은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진학하고 대학의 경우 평생교육원과정 등과 같이 학력인증만 받는 방식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이다. 테니스, 골프, 스키 등 종목특성상 정책을 준수하면서 선수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정규교육과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김경수, 박원식, 2017; 김금란, 2017). 정책이 다수를 대상으로 입안되고 실행될 수 밖에 없지만 결국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 없이는 정책에 순응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 2. 학업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

첫째, 정책입안자와 정책실행자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 먼저 정책실행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정책입안자가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 녹여낼 수 있도록 양측 간의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간담회와 같은장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정책 만들어놓고 하라고만 하면 현장에서는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하라는거지 이런 상황밖에 안되니까요 결국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면서 정책도 만들어야 이게 실제 현장에서 먹힐 수 있는거 같아요. (E참여자)

E참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정책입안 과정부터 개입하여 현장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정책입안하는 측에서는 현장의 정책수요를 충실히 조사하여 정책입안과 실

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인 정책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업적 어려움을 도와야 하는 현장에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앞선 연구문제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실제 현장의 학교운동부에서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해나가야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스포츠혁신위원회, 2019). 이는 정책에 대한 추진배경과 정책내용을 현장에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교육기회와 적합한 매체를 확보하는 방안도 부수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선수에게 학업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학업문제에 책임이 있는 주체 간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생선수의 경우, 학생과 선수라는 이중적 신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양측에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B참여자가 언급한 것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교육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그 정책을 통한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결국 부처 및 기관 간은 면밀한 협조 없이는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기 전 사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학생선수를 보는 입장이 다른거지. 그러다보니 부처간 협의도 안되고, 또 도체육회에서 클럽리그하자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우리는 그 사업안하겠다하고 사업비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 서로 협조가 안되. (B참여자)

아울러 학교운동부와 지도자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률적인 평가와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의 성적에 의해 지도자의 고용이 결

정되고 있다. 안정적인 처우가 보장되어 자신의 선수를 당연히 운동만 시키는 것이 아닌 전인적인 측면에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따라서 학생선수의 학습만을 독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아닌 이 정책을 원만히 발현시킬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즉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안정적인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장, 교감이 메달 따는게 중요하다는데 어떤 지도자가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니까. 애들 공부시킬 거 다 시키면서 메달도 따오라고 하면,, (C참여자)

최영준(2019)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도자의 지도실적이 우선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지도자로서,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동현과 윤양진(2011)의 연구에서도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에 있어 정책적으로 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신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업적응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무기 계약직과 같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재계약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고용불안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지만, 급여하락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생선수의 학업병행을 위한 정책은 재점검되어야 한다.

셋째, 현장의 정책실행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다수 정책이 현장의 도움보다는 현장의 규제라는 공통적 경향을 띄고 있다(명왕성, 최영래, 2019). 그러나 예를 들어, 학생선수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초기에 그들의 학습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정책의 당위성만으로는 실제 학습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

뭐랄까 학습도우미라던지 애들 과제는 잘했는데도 봐주고 오늘 수업 받은 내용도 확인하고 잘했으면 그걸 격려도 해주는 존재가 필요해요. 사실 이 모든걸 코치들이 할 순 없는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선수들을 잘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면 또 안될거 같아요. 선수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도 진짜 선수들이 어떤지 아는 사람이 애들을 봐주면 금방 애들을 따라올 거 같아요. (F참여자)

이에 대해서 이얼(2018)은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습 환경 조성과 지원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게다가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이혁기, 박창범, 임수원, 2007)는 선행연구 결과와 함께 지도자의 학습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진국희(2010)는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을 수준별 수업, 특별반 편성 운영, 학업환경 개선, 클럽 전환으로 제시하였다. 4가지 개선방안 중 개별수업과 팀 수업으로 세분화 진행되는 수준별 수업, 멘토링을 활용한 특별반 편성은 이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공운방’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대학생 멘토링 제도’의 시범

사업이 있지만, 예산문제로 지속가능한 교육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시범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반면 또래 친구 학습 도우미제(임성철, 원영신, 2012)와 공부방 운영(박기동, 윤대중, 정현국, 2011; 전해림, 2012) 등으로 우수사례를 제시한 연구가 진행되며 학생선수 학업적응을 위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최상협과 이병찬(2020)은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을 통해 학생선수 학업능력 향상 과정을 분석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긍정적 결과를 보고하였다. 수업결손 프로그램, 도우미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공부방 운영 프로그램으로 학생선수의 성적이 향상됨을 증명한 것이다.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되지만 이와 같은 현장중심 연구를 종합하여 정책을 수립한다면 학생선수의 학업적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좋은 정책이라도 실제 그 정책이 현장에 반영되는데 있어 장애가 있다면 그것이 해소되어야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입안되고 현장에 제공되었지만 그 중 많은 부분은 F참여자가 위의 지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이 겪는 어려움 즉 학습문제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이 없었던 것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학생선수가 동일한 문제로 인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이와 같이 현장일선의 당사자들이 겪는 장애를 해소시키는 접근이 정책효과를 높이는 실천적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학생선수의 학업적응에 대한 정책과 현장의 괴리에 대해 분석하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의 학업문제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정책전문가 3명과 현장전문가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상기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과 현장의 간극에서는 첫째, 정책입안자와 정책실행자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때문에 정책입안자와 정책실행자가 소통하여 우선순위에 대해 협의하여 협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의 학업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현장에서 학생선수가 겪는 학습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효과성을 고려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학업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정책입안자와 정책실행자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학생선수의 학업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현장의 정책실행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규제가 아닌 현장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학생선수의 학업적응에 있어 10년 이상 강구된 정책과 그것이 적용되는 현장의 간극을 이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의 소리를 담았다. 다만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학생선수의 학업문제와 관련한 종목단체, 부모의 입장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현장에 보완적인 추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무엇보다 학습권 보장을 포함한 학생선수의 학업문제에 관한 정책연구가 현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연구물로서 가치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와 같이, 연구가 현장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유경(2015). **초등학생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생활요인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곽은창, 김용규, 주병하(2011). 우리나라 중, 고교 학생선수들의 학습환경 실태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8(1), 1-16.
- 김경수, 박원식(2017). [KTA] **“3회 초과했다고 국제대회 출전 거절할 수 있나요.”** 테니스피플, <http://www.tennispeople.kr/news/articleView.html?idxno=6870>에서 검색.
- 김금란(2017). **종목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819>에서 검색.
- 김동현, 윤양진(2011).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

- 제 도입을 위한 정책요소 및 우선순위에  
분석. **체육과학연구**, 22(2), 2008-2024.
- 김상우, 유정애(2018). 대학스포츠 정책변화에  
따른 체육특기자 신입생의 대학생활 문화  
이해.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2(2), 99-117.
- 김석용(2015). **대학교 학생선수의 수업문화: 유  
도전공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  
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김성우, 임현주(2013). 고등학교 학생 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  
례연구. **코칭능력개발지**, 15(3), 23-32.
- 김혜영(2009). **건강장애학생의 학습의욕과 사회  
적지지 지각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홍석, 류태호, 최진숙(2009). 학생 선수에서  
운동부 학생 되기: 고등학교 검도선수의  
운동과 학업병행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  
스포츠교육학회지**, 16(1), 145-157.
- 명왕성, 최영래(2019).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및 교육학적 고찰.  
대학스포츠 C0규정의 사례. **체육과학연  
구**, 30(2), 345-359.
-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  
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박기동, 윤대중, 정현국(2011). 함께 가는 길: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 **한국스포츠인  
류학회 학술대회**, 12, 67-78.
- 박민영(2020). 학교체육정책의 이모저모-현장교  
사와 장학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체  
육**, 23, 35-43.
- 서울대학교육연구소(1998). **교육학 대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 스포츠혁신위원회(2019).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  
스포츠 참여활성화 권고** 스포츠혁신위원  
회 2차 권고문.
- 신경립, 조명옥, 양진향 외(2004). **질적 연구 방  
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현석(2018). 정책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본 문  
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혁신 방향 분  
석 및 과제의 탐색. **교육문제연구**, 31(1),  
227-272.
- 심의보(2015). **학교부적응에 관련된 변인의 메  
타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  
교 대학원.
- 우승호, 진영경(2018). 우리나라 학생선수 육성  
환경의 변천과정 및 발전방안 탐색. **체육  
사학회지**, 23(2), 55-68.
- 이얼(2018). **우수 학생선수 학업-운동 병행 경  
험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  
교 대학원.
- 이혁기(2011).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  
수의 경험과정 : 자아의 재정의. **한국스  
포츠사회학회지**, 24(1), 1-24.
- 이혁기, 박창범, 임수원(2007). 공부하는 학생선  
수 만들기: 중학교 축구부 사례연구. **한  
국체육학회지**, 46(1), 181-191.
- 이혁기, 임수원(2010).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운동부 문화와 사회적 함의. **한국스포츠  
사회학회지**, 23(4), 85-105.
- 임성철, 원영신(2012). 체육교사 운동부 감독의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 실천과정. **한  
국스포츠사회학회지**, 25(3), 115-135.
- 임효성, 최영준(2018). 학생선수의 학업적 스트  
레스와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에서 스트

- 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 6(3), 49-59.
- 전정선, 윤양진(2011). 현장에서 바라본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 *한국체육정책학회지*, 9(2), 27-42.
- 전해림(2012). **중학교 운동부의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 실천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다빈(2018). **대학 학생선수의 학업문화 탐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일규(2016). **C 학점과 어린 선수의 꿈**.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2100196](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2100196)에서 검색.
- 정현우, 윤기준(2020). 고등학교 학교운동부 학업-운동 병행 사례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4), 127-141.
- 진국희(2010). **공부하는 축구선수를 위한 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최보람(2008).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소득수준, 성취동기, 진로태도성숙요인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상협, 이병찬(2020).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 *한국체육과학회지*, 29(2), 719-730.
- 최영준(2019).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한 현장 목소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7(1), 61-73.
- 한국교육심리학회(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홍석호(2013). 학생선수 학습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1(4), 75-88.
- Bryant, A., & Charmaz, K. (2007). Sampling in grounded theory. *The SAGE handbook of grounded theory*, 229-245.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Y: Holt, Reinhart & Winston.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14일  
논문심사일 : 2020년 7월 2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20일

## ABSTRACT

### **The Gap between the Sport Policies and Schools on the Academic Adjustment of Student-Athletes**

Lim, Hyo-Sung(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  
Choi, Young-Jun(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study wanted to examine the policy of student-athletes' academic adaptation and explore the gap between the field and seeking practical measures.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three policy experts and three field expert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in the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for each research participa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inductive category analysis. The results from the above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gap between policy and field, it was found that the priorities of policymakers and policy implementers were different, that there wa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academic policies of the field, and that there was a lack of policy consideration for the learning problems experienced by student-athletes in the field. Second, measures to help with academic adaptation should, first, strengthen the communication between policymakers and policy implementers, lay the foundation on which the academic policies of student-athletes can be applied, and provide practical devices to help implement policies on the field.

**Key words** : Student-Athletes, Academic Adjustment, Policies, School Field, Gap